

# 동서양 주요 비블리오코스트의 미스터리와 진상

## Mysteries and truth of the Major Bibliocaust in the East and West

윤 희 윤 (Hee-Yoon Yoon)\*

### 목 차

- |                    |                           |
|--------------------|---------------------------|
| 1. 서 론             | 3. 대표적인 비블리오코스트의 미스터리와 진상 |
| 2. 비블리오코스트의 역사와 요인 | 4. 요약 및 결론                |

### 초 록

책은 신성과 이성, 우상과 파괴, 찬양과 저주, 오만과 편견, 진위 등이 혼재하는 삶과 기억의 각주이자 지식과 지성의 기호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제왕과 군주, 성직자, 지배자들은 검열과 금서, 분서와 파괴 등을 통해 책을 학살해 왔다. 고대사, 고고학, 전쟁사, 문화사, 문헌정보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서양사관이 지배적이고 국수주의적 접근과 논리적 비약도 있다. 본 연구는 많은 미스터리와 쟁점이 혼재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파괴,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도서관 파괴, 그리고 조선총독부 한국사료 20만 문서설을 대상으로 진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 군대의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은 서양의 날조와 극단적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35년간 강탈·소각한 한국사료는 '20만권 +a'로 인식해야 한다. 사료 발굴을 통한 비블리오코스트의 배후와 행간을 추적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 ABSTRACT

The book is a footnote of life and memory, a sign of knowledge and intelligence, including divinity and reason, idols and destruction, praise and curse, arrogance and prejudice, truth and falsehood. The past emperors, monarchs, priests, and rulers have been controlled or slaughtered by censorship and prohibition, burning and destruction, etc. In ancient history, archaeology, war history, cultural histor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burning and destruction of books, but the Western perspective is dominant, and there are nationalistic approaches and logical leaps. This study traced the truth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oyal Library of Alexandria in Egypt, destruction of the Baghdad libraries by the Mongol Empire, and burning more than 200,000 volumes of Korean historical document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among the major bibliocausts with many mysteries and controversial issues in the East and West. As a result, the Royal Library of Alexandria is most likely destroyed under the rule of the Roman Empire. The massacre of the Baghdad library by the Mongolian army is a historical fact, not the manipulation and extreme exaggeration of western society. And Korean historical documents have been stolen and burn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for 35 years and should be recognized as '200,000 + a'. Lastly, On the premise of excavating historical material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the libriocaust or libricide should be continued.

키워드: 분서, 도서관 파괴, 비블리오코스트, 리브리사이드, 문화 반달리즘

Book Burning, Destruction of Library, Bibliocaust, Libricide, Cultural Vandalism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29-49,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029>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6천년간 인류는 책에 집합적 기억과 집단적 지식을 담은 후 도서관에 보존·전수하여 왔다. 책이 지적 DNA라면,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게놈(Genome)이며, 그들의 장구한 궤적이 지식문화사다. 그런데 속살을 들어다보면 한편에서는 집요하게 집적·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자비하게 질식·파괴하는 등 무수한 부침과 영욕이 흔재되어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유대교 타나크(Tanakh), 기독교 구약성서(Old Testament), 힌두교 우파니샤드(Upanisad), 불교 반야심경(般若心經), 이슬람 쿠란(Qu'ran), 철학자 베이컨(F. Bacon)의 「수상록」(The Essays) 등에 기대어 지식과 지혜를 금과옥조로 삼아 왔다. 지식은 학문연구의 궁극적 목표이고 지혜는 종교의 지고한 선이기 때문에 지식생산과 지혜증득을 위한 책에 대한 애착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책과 도서관은 자주 인질과 감금, 분서와 파괴의 대상이었다. 제왕과 군주, 정복자, 성직자를 불문하고 아상(我相, atma-samjna)에서 비롯된 탐진치(貪瞋痴) 삼독 때문이다. 아상이 근원적 무지와 미혹에서 비롯된 우월주의적 관념이라면 삼독은 모든 악행의 서식지이자 단초다. 아상과 무명에 매몰되어 겸열, 왕권 도전, 교리 위배, 민족문화 정화, 사회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책을 학살하여 왔다.

그 시작이 BC 2300년 아카드 제국의 시리아에 블라 왕립아카이브 파괴였고 최근 사례가 2019년 중국 간쑤성 소재 공공도서관의 공개적 분

서다. 지식문화사를 반추하면 지진과 화재를 제외한 조직적 분서와 무차별 파괴는 무수히 많았다. 이에 주목하여 고대사, 고고학, 전쟁사, 문화사, 문헌학, 과학과 건축 등에서 특정 사례를 위주로 단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분서에 대한 종합적 저술도 다수 있다(Knuth, 2003; Polastron, 2007; Báez, 2008; Fishburn, 2008). 그러나 서양사관이 지배하는 가운데 국수주의와 논리적 비약도 심하며, 쟁점이 많은 가설임에도 사실인양 인터넷을 도배하고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을 포함한 동서양의 주요 분서 및 도서관 파괴에 대한 미스터리와 진상을 추적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비블리오코스트의 역사적 배경과 요인을 개관한 후 주요 사례 중에서 특히 많은 쟁점이 흔재하고 논박이 계속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분서와 파괴,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도서관 파괴와 참상, 그리고 조선총독부 데라우치(寺內正毅)의 한국사료 20만 분서설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와 진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나머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도처의 분서 및 파괴를 둘러싼 쟁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책과 도서관의 파괴를 역추적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도달한다. 신전과 왕궁, 왕조와 제국에 설치한 점토판·파피루스·양피지 등의 기록관과 도서관 등은 지진·홍수·화재 등 자연적 재해로 훼손되었고 분서·방화·약탈·폐쇄 등 인위적 파괴로 소실되었다. 그 시제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과 도서관 파괴의 함의와 역사를 개관하고 배경과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둘째,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분서 및 도서관 파괴 가운데 여전히 베일 속에 있거나 쟁점이 혼재하는 사례, 서양사관이 주류이거나 국수주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한 사례,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료 및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진상을 추적한다.

셋째, 사례분석 대상은 보편적인 지식처럼 회자되지만 많은 편견과 쟁점이 잡복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 언어로 각색되어 확대 재생산이 계속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파괴설,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도서관 참상설,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한국 역사서 20만권 분서설로 한정한다.

넷째, 사례분석 방법은 가설과 미스터리의 출발점이 된 최초 근거자료에서 최근 단행본 및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를 망라하되, 상충되는 내용을 대조하여 진위를 추적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당시를 증언한 역사자료나 기행문 등이 부족하고, 원전의 그리스어·아랍어 등이 아닌 2차 번역자료를 활용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비블리오코스트의 역사와 요인

### 2.1 비블리오코스트의 함의와 역사

모든 책은 삶과 기억의 각주이자 지식과 지성의 기호다. 세월을 두고 숙성되면 문화와 역사로 격상되고 도서관에 집적되면 지식문화의 총체가

된다. 책에는 신화와 전설, 계시와 이성, 우상과 파괴, 승자와 패자, 친양과 저주, 오만과 편견, 진실과 허위, 정사와 야사 등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제왕이나 군주, 성직자, 지배자 등은 검열과 통제, 금서와 분서, 은폐와 인멸, 폭격과 파괴 등으로 거세하고 학살해 왔다.

그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분서(book burning)는 책의 화형이고, 도서관의 방화 및 파괴는 지식문화와 지성의 학살이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책을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악행을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면 비블리오코스트(bibliocaust)이고, 성서에 방점을 두면 비블리오크라즘(bibliclasm)이며, 책과 도서관을 살해한다는 의미에서는 리브리사이드(libricide)이다. 그것은 일시적 매장이 아니라 사멸이다. 존재를 영원히 제거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집단적 기억 및 지성의 말살이다. 민족적, 종교적, 사상적 측면에서는 특정 문화권이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문화활동을 탄압하는 문화정화(cultural cleansing)이며, 민족학살(ethnocide)로 귀결된다.

이러한 비블리오코스트 역사는 고대 문명사와 궤적을 같이한다. 그 최초는 BC 2300년경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왕(Sargon the Great)이 시리아를 침공하여 에블라 왕립아카이브의 점토판 15,000점을 훼손한 것이고(Ristvet, 2014, 54),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 10월 22일 간쑤성 전위안현도서관(鎮原縣圖書館)이 불법서적, 종교자료, 편향도서로 지목한 65권을 공개적으로 소각한 것이다(任然, 2019). 국가권력이나 특정 집단 등이 자행한 비블리오코스트의 주요 연대기를 간추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서양 비블리오코스트 연대기

시기	주요 파괴 및 분서 내용
BC 2300	• 아카드 제국(Sargon the Great)이 시리아 에블라 왕국을 침공하여 왕립아카이브(Royal Archives) 점토판 15,000점 파손(1968년 마띠에(P. Matthiae)가 설형 파편 17,000점, 완전한 파편 25,000점 발굴)
BC 7-6세기	• 612년 바빌로니아인, 스키타이 유목민, 고대 이란 메테스족의 연합군이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하여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Royal Library of Ashurbanipal) 점토판 3만점 파괴
BC 3-2세기	• 312년 진시황의 선대 역사서(진대 역사·예술·농경 등 제외) 문서와 이듬해 방사 등 460명 생매장 • 168년 셀레우코스 제국 안티오크스 4세(Antiochus IV)의 유대인 유플서(Jewish holy books) 파괴·분서
BC 1세기	• 48년 카이사르(G.L. Caesar) 방화로 알렉산드리아 파페루스 일부 소실 • 12년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그리스어·라틴어 성서 2,000권 공개적 분서
2-7 세기	• 114-117년 코트족 침입으로 로마 제국 셀수스도서관(Library of Celsus in Ephesus) 두루마리 2만매 파괴 • 270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L.D. Aurelian)와 297년 테오도시우스(F. Theodosius)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파괴, 알렉산드리아 제2대 대주교 테오펠로스(Theophilus of Alexandria)의 세라피움 파괴 • 363-364년 황제 올리아누스(F.C. Lovianus)의 안티오크(Antioch) 왕립도서관 소장 비기독교 자료 대량 분서 • 642년 이슬람 칼리프 우마르(Umar ibn al-Khattab)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문서와 파괴
11-12 세기	• 1068년 터키군의 이집트 침공으로 파티마 왕립도서관의 112만 책 파괴 • 12세기 쿠르드족 무슬림 장군 출신의 이집트 파티마왕조 술탄 살라딘(Saladin 1137-1193)이 알 아즈하르 (Al-Azhar) 마드라사를 수니파 학문센터로 전환할 때 도서 12만-200만권 분서 • 1193년 맘루크 왕조 아이바크(Qutb al-Din Aibak)의 명령으로 마가다왕국 나란다 사원의 도서관 파괴
13-15 세기	• 1232년 고종 19년 몽골 제국 살리타이(撒禮塔)의 제2차 고려 침입 때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 소실 • 1242년 루이 14세(Louis IX) 치하 그레고리 9세(Gregory IX)의 모든 탈무드 복사본 12,000권 분서 • 1258년 1-2월 몽골 훌라구가 바그다드 지혜의 집, 마지드·모스크 등 부속도서관 파괴 • 1400년대 초 아스테카 제4대 황제 이츠코아틀(Itzcoatl, 재위 1427/1428-1440)의 모든 코덱스 역사서 분서
16-18 세기	• 1515년 로마 교황청 제217대 레오 10세(Leo X)가 교황청 승인을 받지 않고 인쇄된 모든 책의 파기 명령 • 1539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Henry VIII)의 수도원 해산과 글라스톤베리(Glastonbury) 수도원도서관 방화 • 1562년 스페인 신부 란다(Diego de Landa)가 모든 마야사본을 악마의 자료로 간주하여 소각 • 1592-1597년(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왜군의 4대 사고(전주사고 제외) 방화로 조선왕조실록 소실 •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귀중서 4,700여권 중 350종과 왕실 귀중품 약탈, 서고 불태움
1910년대	• 1910년 조선총독부의 한국 역사서 20만권 분서, 대마도 종가문서 중 고문서류 6만점 이상의 은폐·소각 • 1914년 독일 포화로 벨기에 가톨릭 루汶대학(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장서 230,000권 이상 소실
1937-1945 년대	• 1937-1945년(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난징, 베이징, 상하이 등 도서관장서 약 300만권 파괴, 문서, 민족 •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중 나치 독일의 바르샤바 국립도서관 장서 약 70만권과 공공도서관 장서 1,500권 분서·파괴, 베를린 문서, 유럽도서관 약 1억권의 의도적 파괴
1960-1970 년대	• 문화대혁명(1966-1976) 때 마오쩌둥 흥위병이 중국과 티벳 사찰 4500여개 이상, 경전과 고금 진귀한 서적을 파괴·소각하고, 지식인들이 소장한 회귀본과 서화를 압수·분서 • 1967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카마츠(赤松勇)가 법화경계 재가불교단체 창가학회 및 신흥종교인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동의 하에 일본대학에서 약 105,000건 소각
1980-1900 년대	• 1981년 스리랑카 민족주의자가 타밀도서관(Tamil Library)의 종려 잎으로 만든 두루마리 등 97,000권 문서 • 1989년 후세인 군대의 쿠웨이트대학 장서 54만권 중 대부분과 학교도서관 장서 43% 문서 • 1990년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의 도서관 장서 280만권 이상 문서 • 1992년 8월 세르비아 포병대의 보스니아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장서 150만권 파괴·소각
2000년대	•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 국립도서관 장서 30% 소실, 도서관 직원 7명 사망 • 2014년 나이지리아 테러조직 보코 하람(Boko Haram)이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서 수천 권 문서 • 2014-2015년 이슬람 무장단체(IS)가 모술대학도서관 방화, 모술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문서·파괴 • 2019년 중국 간쑤성 전위안현도서관의 불법서적, 종교자료, 편향도서 공개 소각

## 2.2 비블리오코스트의 배경과 요인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진, 홍수, 화재, 미생물과 충해, 산성화, 부식 등에 의한 책의 소실도 많지만, 사라진 책의 60%는 인간의 파괴 때문이다(Báez, 2009, 417). 책과 도서관의 파괴는 원초적 본능인가, 충동적 야만인가, 조직적 학살인가. 그 저변에 존재하는 무지와 탐욕, 본능과 야만, 오만과 편견, 극단적 전제주의, 폭력적 배타주의, 종교적 우상숭배, 문화적 반달리즘 등을 중심으로 비블리오코스트의 배경과 요인을 사례와 함께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지와 탐욕에서 발원하는 본능적 폐권주의와 정복전쟁은 분서와 도서관 파괴를 초래한 최대 요인이었다. 무지에서 발원한 권력적 탐욕과 지배심리는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과 전쟁으로 이행되고 무자비한 파괴와 살육의 광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카드 제국의 에블라 왕립아카이브 파손, 바빌로니아인 등의 신아시리아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 파괴, 나치 히틀러의 유럽 도서관 파괴, 일본의 조선왕조실록 및 중국 도서관 분서, 몽골 제국의 부인사 초조대장경 소각 및 바그다드 도서관 파괴, 독일의 가톨릭 루뱅대학도서관 포격과 소실, 보스니아 전쟁 중 200개관 소실과 사라예보 국립도서관 장서 90%의 파괴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종교적 편협성과 배타주의는 특히 중세의 금서와 분서, 도서관 학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우상숭배와 종교적 우월주의, 세속적 권력화, 타종교 배척과 이단화, 강제적 개종, 신성 모독이라는 굴레와 낙인 등을 무수

한 신도를 탄압하고 사원과 경전을 불태웠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셀레우코스 제국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인 율법서 파괴와 분서,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공개적 성서 소각,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테오펠로스의 세라피움 파괴, 로마 제정 말기 율리아누스 황제의 안티오치 왕립도서관 비기독교 자료 대량 분서, 이집트 파티마왕조 술탄 살라딘의 알 아즈하르 마드라사 분서, 맘무크 왕조 아이바크의 나란다 사원도서관 파괴, 이탈리아 그레고리오 9세의 텔무드 복사본 분서, 잉글랜드 헨리 8세의 글라스톤베리 수도원도서관 방화, 마오쩌둥의 터베트 사찰 방화 및 경전 분서, 아카마츠의 법화경 및 신흥 종교서적 소각,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의 바미얀 석불 폭파와 불경 소각,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나이지리아 교회 및 성서 파괴 등이다.

셋째, 왕조세력, 독재군주, 침략주의자 등의 지배적 도그마(dogma)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공개적 분서 및 도서관 파괴의 주범이었다. 고대 왕조, 중세 교황청, 근대 이후 독재자까지 권력을 장악·유지할 의도로 책과 도서관을 적의 무기,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소각한 제도적 폭력이다. 이를 위해 이념적 편향, 종교적 불온, 사회적 부도덕과 외설 등을 빌미로 검열, 금서와 폐기, 분서와 소각, 방화와 폭격을 동원하여 책과 도서관을 파괴하였다. 최초 악행이 유가사상 통제와 지식인 탄압을 통한 절대 권력을 추구한 진시황의 분서갱유이며, 그 외 아스테카 이즈코아틀 황제의 모든 코덱스 역사서 분서, 교황 레오 10세의 책 파기, 나치 히틀러의 베를린 분서, 간쑤성 전위안현도서관의 공개적 소각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근대 이후에는 국가권력이나 민족주의자 또는 테러조직이 인종청소, 민족말살, 역사지우기, 문화정화라는 명목 하에 자행한 문화적 반달리즘(vandalism)이 책 학살과 도서관 파괴의 요인을 부상하였다. 그 배경에는 무지와 물이해가 있지만 충동적 행위를 넘어 이민족 및 이교도 정복·지배를 위한 극단적 광기에 의한 계획적 범죄, 무자비한 폭력, 공개적 반달리즘이 더 많다. 스페인 란다 신부의 모든 마야사본 소각,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동화정책을 위한 한국사료 분서, 비독일인 정화를 위한 베를린 분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통한 금서와 유교경전 소실, 스리랑카 민족주의자의 타밀도서관 종려 두루마리 분서, 후세인의 쿠웨이트대학 및 학교도서관 분서,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의 도서관 파괴, 이라크 전쟁에서의 바그다드 포위전과 국립도서관 소실, 이슬람 무장단체의 모술지역 도서관 방화 등이 주요 사례에 속한다.

다섯째, 책과 도서관이 함축하는 다중성도 분서와 파괴에 일조해 왔다. 책이 지문과 수상을 응축시킨 지식문화의 집이라면, 도서관은 무수한 지문과 수상이 집합적 기억으로 내재화된 지식문명의 기둥이다. 책이 시각의 확장이라면 도서관은 오감과 두뇌의 확장이다. 말은 책을 통해 권력을 얻고, 책은 지식을 통해 권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도서관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며, 도서관은 지식과 권력을 보존하고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다중성 때문에 책과 도서관은 지식과 지혜를 담은 유기체인 동시에 지식문화 유산이지만, 독재군주에게는 체재에 대한 도전과 전복의 씨앗이고, 배타적 성직자에

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악마의 소굴이며, 반지성주의자에게는 척결과 정화의 대상이고, 민족주의자에게는 하잘것없는 물건이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진시황, 로마 제국 군주, 가톨릭 교황과 주교, 무슬림 칼리프, 몽골 제국과 청기즈칸, 마오쩌둥과 홍위병, 나치 히틀러와 괴벨스, 조선총독부와 데라우치, 민족주주의, 테러조직과 무장단체 등이 이념도서, 종교경전, 역사서, 외설서 등을 분서하고 왕립도서관, 수도원도서관, 모스크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을 파괴한 역사가 대변한다.

이처럼 분서와 도서관 파괴에는 여러 요인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파괴 본능 외에 지배자의 극단주의적 세계관, 독선적 및 과시적 성격, 학제적 광기 등에서 기인한다. 이념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전쟁, 식민사관 확산 등이, 정치권력 측면에서는 지식의 도구화 및 정통성 확보, 지배권력의 정당화 및 우상화를 위한 정지, 피정복민의 자존심 유린, 우민정책의 방편, 책과 도서관의 체계 위협성 등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종교적 관점에서는 신성 모독에 대한 거세, 강제적 개종, 민족정화 등이, 지식문화적 측면에서는 책의 역사문화적 대표성, 책 자체의 다중성(휴머니즘과 다원주의 대 비판주의와 도전성, 적대적 상징물 대 통치논리 제공), 도서관의 정치적 비중립성(저항세력 학습의 온상, 피지배계층 계몽을 통한 도구), 지적 자유에 대한 검열, 문화적 다양성 말살 등을 이유로 파괴한다. 요컨대 본능적 폐권주의, 종교적 배태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반달리즘, 책과 도서관의 다중성이 비불리오코스트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 3. 대표적인 비블리오코스트의 미스터리와 진상

#### 3.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파괴의 가설

위대한 군주, 정복자 아이콘, 불세출 영웅으로 회자되는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323)이 죽은 후 대제국은 4개 권역(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으로 분할되었다. 이집트는 대왕의 사촌 프톨레미 1세(Ptolemy I, 재위 305-282)가 제32왕조 파라오로 등극하여 알렉산드리아로 천도하고 BC 295년 사부 아리스토텔레스가 권고한 그리스 시인 겸 철학자 데메트리オス(Demetrius, BC 350-280)를 초빙하여 왕궁지구(Brucheum)에 무세이온 아카데미(Mouseion Academy)를 건립하였다. 그는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 도서관(Lyceum)을 모델로 삼아 아카데미와 부속기관(도서관, 동식물원, 천문대, 실험실, 해부실 등)을 포함한 궁전사이트를 조성하였고, 프톨레미 왕조는 석학들의 지식탐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무세이온은 프톨레미 왕조의 적극적 후원으로 동서양 학술연구 허브로 부상하였다. 그 심장이자 보고인 알렉산드리아도서관(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ανδρείας)은 프톨레미 2세(Ptolemy II, 재위 BC 284-246)가 북동쪽 무세이온에 부설한 본관(일명 부루치움)과 50년 후 프톨레미 3세(Ptolemy III, 재위 BC 246-222)가 남동쪽 세라피스 신전에 건립한 분관(일명 세라피움)을 충칭한다. 이에 대한 최초 기록은 BC 100년경 왕실도서관에 근무한 아리스테아스(Aristeas)가 히브리어 구약성서인 칠십인

역(Septuaginta)을 고대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기술한 「아리스테아스 서신」(De Brief van Aristeas)이다. 도서관 건립을 주도한 테메트리오스가 프톨레미 왕관, 철학자 플라톤 스타일, 지구촌 교역서를 수집하도록 권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를 지식과 학문, 문화와 예술의 수도로 격상시키는 동인이었고 수장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40만-70만매에 달하였다(Parsons, 1952; Fraser, 1972, 27-29; Bunson, 2014, 5). 평균 수장량을 50만 매(현대 책 10만권)로 가정하면 서가 길이는 40km, 컨테이너는 166,667개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학문탐구 허브 및 헬레니즘 문화의 산실이었다면, 부루치움의 무세이온은 왕궁단지의 요체인 동시에 현대판 대학의 원형이자 생크탱크였고, 도서관은 학술연구정보의 보고였다. 그 혼적을 2004년 5월 폴란드와 이집트의 고고학 발굴팀이 찾았다고 발표하였으나(Whitehouse, 2014) 여전히 무세이온과 도서관의 관계, 건물 위치와 규모, 독립건물 여부, 역대 관장과 파피루스 분량, 파괴와 사멸을 둘러싼 논박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담론이 도서관 파괴와 분서인데 역사학, 고고학, 박물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과학과 수학,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시된 비블리오코스트의 가설은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 카이사르(G.L. Caesar, BC 100-44), 로마 공화정 말기의 황제 아우렐리우스(L.D. Aurelian, 재위 270-275), 로마 제국 최후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F. Theodosius I, 재위 379-395)와 콥트 정교회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테오펠로스(Theophilus, 재위 384-412), 그리고 이슬람교의 제2대 정통

칼리프 우마르(Umar ibn al-Khattab, 재위 634-644)이다(Thiem, 1979, 507-526; MacLeod, 2000, 70-74; 남태우, 2002, 259-296; Philips, 2010, 4-6; Yasmin, 2018, 127-138; Shah, 2018, 9472-9482). 이들을 재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의 주역은 카이사르이며, 배경은 로마 시민전쟁과 알렉산드리아 내전이다. BC 48년 8월 9일 제1차 삼두정치를 주도하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파르살루스(Pharsalus) 전투에서 폼페이우스가 패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자 카이사르가 추격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BC 48년 9월 29일 이집트 군대에 꾀살되었다. 이집트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이복 남동생이자 남편이던 프톨레미 13세의 알렉산드리아 내전에 휘말렸고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 와중에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항구를 포위하고 정박해 있던 배에 불을 질러 해안 건물로 번졌다. 이를 두고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Livius, BC 59-17)는 「로마건국사」(Ab Urbe Condita)에서 ‘카이사르 방화로 도서관장서 4만권이 파괴되었다’고 기술하였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Seneca, BC 4-AD 65)의 철학에세이 제9권 「평상심에 관하여」(De Tranquillitate Animi)에 인용된 후 사실처럼 확산되어 왔다(Plutarch, 1919, 561; Watts, 2008, 149; Murray, 2009, 53; McKeown, 2013, 150). 디오 코케이아누스(Dio Cocceianus, 155-235)도 「로마사」(Historia Romana, 전 80권)에서 ‘불길이 항구의 조선소, 무기고, 석조 곡물창고 등으로 전이되고 엄청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불탔다’고 기록하였다

(Watts, 2008, 149; Haughton, 2011). 그가 언급한 화재는 도서관이 아니라 부두 근처의 수출용 파피루스 창고였다는 입장도 있다(Casson, 2001, 46; Tocatlian, 1991, 256). 그 전에 그리스계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 BC 63-23)가 카이사르 방화 후인 BC 20년경 무세이온을 방문하였을 때도 도서관은 있었다(Casson, 2001, 46). 게다가 BC 43년 제2차 삼두정치 중 옥타비아누스(G. Octavius, BC 100-59)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안토니우스(M. Antonius, BC 43-30)가 이집트로 망명한 후 클레오파트라 7세와 결혼할 때 카이사르 방화로 인한 소실분을 페르가몬도서관 장서 20만권으로 보충해 주었고 세라피움에 보존하였다. 요컨대 카이사르의 의도적 방화로 인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전소는 신뢰하기 어렵다. 수출용 파피루스 창고가 불탔을 가능성, 항구와 무세이온의 물리적 거리, 책더미(bibliothekas)와 도서관(bibliotheka)의 혼동 등이 방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의 주인공은 로마 공화정 말기의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다. 프톨레미 왕조 300년은 마지막 여제 클레오파트라 7세의 자결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로마 속주가 되었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의 학술적 명성이 저하되고 무세이온 존재감도 떨어졌다. 도서관장 및 상근 연구자 자격은 학문적 업적이 아닌 정치·군사 및 운동경기 성과에 따라 부여되었고 도서관도 축소되었다. 그로부터 2세기가 경과한 3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식민도시 팔미라 제국(Palmyra Empire)의 여제 제비노아(Zenobia, 재위 264-274)는 독립국을 선언하고 중계무역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아나톨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을 지배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270년 아우렐리아누스는 이집트 정복에 나섰고 제노비아 군대와 교전하던 중 부루치움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도서관도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무세이온과 도서관이 존재하였더라도 297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이아누스(G.A.V. Diocletianus, 재위 284-305)가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할 때 파괴되었다(Casson, 2001, 47; Watts, 2008, 150). 다행히 세라피움은 전화를 면했지만, 자료 중 일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관되었다.

세 번째 가설의 주역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테오펠로스다. 그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다. 313년 서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F.V.A. Constantinus, 재위 306-337)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G.V.L. Licinius, 재위 308-324)는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통해 '종교적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 여파로 기독교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330년 대제는 비잔티움으로 천도한 후 콘스탄티노폴로 개칭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특히 380년 최후의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이교로 간주하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로마 이교도 사원을 폐쇄하였고, 기독교도는 이교도 학자를 죽이고 비기독교 성채인 많은 신전과 신상을 파괴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반달리즘은 식민지 속주 이집트에서도 계속되었다. 테오펠로스는 로마 황제 허락 하에 모든 이교도 신전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 피의 의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무자비하였다. 도서관을 포함한 부루치움 지구의 대다수 건물은 파괴되었다(Canfora, 1990, 52). 당시 이교도 순례지 세라피스 신전도 참화를 면하지 못하였고, 390년 세라피움 파

피루스 42,800매가 분서·파괴·반출됨으로써 종말을 고했다. 그 참상은 2009년 스페인 아메나바르(A. Amenábar) 감독의 영화 '아고라' (Agora)로 재연된 바 있다. 시대적 배경은 4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고, 스토리는 마지막 관장 테온(Theon of Alexandria)의 딸이던 그리스계 수학자·철학자·천문학자 히파티아(Hypatia, 370-415)가 기독교도에 의해 참살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히파티아는 동로마 속주였던 알렉산드리아 신플라톤주의 학자를 대표하는 동시에 최초 여성 과학자로 박식하고 미모도 출중하였다. 그녀는 30대에 무세이온 교수가 되었고, 강의실 앞에는 도시 상류층과 부자들의 마차가 매일 장사진을 이를 정도로 존경받았으며, 제자들은 그녀를 '뮤즈의 딸'로 칭하였다. 히파티아가 기독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면서 내뱉은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대사는 영화를 대변하는 촌철살인이 다(윤희윤, 2020, 165-167). 이처럼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성직자들이 파괴하였고, 당시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행위로 인식하였다(Shah, 2018, 9480). 그럼에도 세라피움 파괴는 알렉산드리아 본관과 별개며, 건물이 전소되고 장서가 완파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없다.

네 번째 가설에 등장하는 장본인은 이슬람교 제2대 정통 칼리프 우마르와 사령관 아무르(Amr ibn al-As al-Sahmi)이며, 시대적 배경은 알렉산드리아 원정과 정복이다. 639년 12월 아무르는 알 아리쉬(al-Arish)를 공격한데 이어 이듬해 항구도시 펠루시움(Pelusium), 빌베이스(Bilbeis), 멜피스, 바빌론을 차례로 정복하고 642년 9월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였다. 그가 우마르에게 엄청난 분량의 파괴루스 처리방법

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13세기 시리아 역사학자 겸 성서학자 헤브라에우스(B. Hebraeus, 1226-1286)가 저술한 「왕조들의 역사」(Tārīkh Mukhtaṣar Al-Duwāl)에 기록되어 있다. 우마르는 ‘그리스 책이 쿠란과 일치하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보존할 필요가 없고, 쿠란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파괴하라’는 답신을 보냈다(Wikipedia, 2020). 이에 아무르는 도서관을 파괴하고 파피루스를 6개월간 목욕탕 불쏘시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2세기 동안 우마르 파괴설은 첨예한 쟁점이었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헤브라에우스는 도서관이 아닌 책을 기술한 것임에도 이슬람과 무슬림이 야만적이라는 유럽사회 편견이 도서관을 파괴한 것으로 각색하였고 보편적 지식처럼 확산되었다고 항변한다. 또한 쿠란 첫 구절에서 나오는 ‘이크라’(Iqra)는 ‘읽으라’는 의미로 지식추구를 무슬림의 의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집트계 아랍역사가 이븐 알 키프티(Ibn Al-Qifti, 1172-1248)는 「Tarikh al-Hukama」(영어 History of Learned Men)에서 무슬림이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한 후 많은 책을 파괴할 때 부루치움이나 세라피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Chica, 2015, 66). 해서 우마르 파괴설은 날조된 사관이자 스토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파괴와 사멸은 지식문화사에서 최대 재앙이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에서 중세 이슬람의 칼리프 우마르까지 권력적 탐욕과 종교적 독단주의를 전제로 무수한 추론과 주장,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미스터리다. 도서관 유적은 물론 유기

물 보존에 불리한 기후조건 때문에 파피루스가 거의 발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를 진술하게 기록한 역사자료나 여행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비블리오코스트 주역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가설이다. 게다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파괴하였다는 주장은 편리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가 초래하는 오류일 수도 있다. 프톨레미 왕조의 쇠퇴와 학자 추방에 따른 알렉산드리아 엑소더스, 로마 제국의 종교적 편향과 이교도 탄압, 이슬람 칼리프의 야만적 파괴가 누적되어 시름하다가 종말을 고하였을 수도 있다.

### 3.2 몽골 제국의 이슬람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

중세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 서로마 제국이 쇠퇴한 476년이 시작이고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이 끝이다. 그 천년을 서양은 암흑기로 평하해 왔다. 그러나 중세 천년을 호령한 이슬람 제국은 그리스 고전을 복원하고 개화시킨 주역이다.

그 심장이 ‘비옥한 초승달’의 중심부 바그다드(Baghdad)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태다. 751년 아바스 제2대 칼리프 알 만수르(Al-Mansur, 재위 754-775)가 수도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천도함으로써 부활하였다. 풍부한 수자원, 비옥한 토양, 동서 무역 요충지, 전략적 요새 등 천혜의 바그다드는 당시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당나라 시안(西安)과 함께 세계 3대 도시였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천일야화」 탄생지다. 그 백미는 알 만수르가 762-766년 쿠란에 등장하는 천국을 건설한 ‘신의 궁전’이자 ‘평화의 도시’

로 지칭된 직경 2km, 고도 8m의 성벽으로 둘러싼 원형도시(Madinat-As-Salam)이다. 요새형 성벽에는 약 2.4km를 간격으로 4개 게이트(시리아와 지중해 방향 Bab al-Sham, 페르시아만 쪽으로 연결된 Bab al-Basra, 중앙아시아 방향 Bab al-Khurasan, 아라비아반도 남쪽 Bab al-Kufa)를 설치하였고 각각 외부 교역로와 연결하였다.

이어 개막한 이슬람 황금시대의 주역은 786년 제5대 칼리프로 등극한 하룬 알 라시드(Harun Al-Rashid, 재위 786-809), 둘째 아들인 제6대 칼리프 알 아민(Al-Amin, 재위 809-813), 이복동생 알 아민을 살해하고 제7대 칼리프가 된 알 마문(Al-Ma'mun, 813-833)이다. 위대한 군주들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포용성 및 개방성을 바탕으로 이슬람 학술연구와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연출하였다. 특히 알 마문이 830년 원형도시에 건립한 지혜의 집(Bayt-al-Hikma)은 장서 40만권 이상을 수장한 도서관을 비롯하여 번역센터, 천문대 등을 갖춘 종합연구기관으로 이집트 무세이온을 능가하는 이슬람 황금문화 창출의 산실이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의 고전을 대거 수집하여 아랍어로 번역·재해석한 지적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과 지혜를 중시하는 이슬람 교리를 정립하고 모스크 중심의 사회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유럽 스콜라 철학, 초기 르네상스, 대학발전과 교육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 500년(750-1258)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광활한 초원의 5개 부족 왕국(캐레이트, 나이만, 타타르, 몽골, 메르키트)을 통일하여 몽골 제국을 창시한 칭기즈 칸(Cinggis Qan, 재위 1206-1227)과 후예들

때문이다. 칭기즈는 ‘천자’(天子)를, 칸(汗)은 왕을 의미한다. 잔인한 정복자 칭기즈칸은 서하(西夏), 증조부를 살해한 대금(大金), 서요(西遼), 호라즘(Khwarezm)을 차례로 정복하였고, 손자 바투(Batu)는 유럽과 러시아를 정벌하여 칵차크 칸국(金帳汗國)을 건국하였다. 또 다른 손자 훌라구(Hülegü, 재위 1256-1265)는 일 칸국(四汗國)을 창시하고 1256년 12월 15일 이란 이슬람교의 요새 알라무트(Alamut)를 파괴하고 도서관을 불태웠으며, 수많은 아사신(assassin, 암살자 집단)을 학살하였다. 이듬해 아프가니스탄 고원을 넘어 바그다드를 향한 몽골군은 1258년 1월 1일 원형도시 부근에 도착하여 제37대 칼리프이자 최후 통치자 알 무스타심(Al-Musta'sim, 재위 1242-1258)에게 항복을 통첩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258년 1월 29일 샤머니즘을 믿는 몽골군 20만명은 바그다드 포위전(Siege of Baghdad)을 전개하여 2월 5일 성벽을 와해시켰으며, 2월 10일까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의 날(the bloodiest days)이 계속되었다. 도시를 초토화하고 운하와 제방 등 관개시설을 파괴하였으며 궁전, 모스크, 병원, 도서관을 불태웠다. 알 무스타심은 용단에 쌓인 채 발굽에 짓밟혀 죽었다. 아바스 왕조는 멸절되었고 이슬람 황금시대도 막을 내렸다. 훌라구가 파괴와 살육을 감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복지 왕조를 단절시키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무슬림의 몽골족에 대한 공개적 무시와 제4대 칸 몽케(Möngke)의 행적을 비난한 시아파를 처단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참상에 대해 아놀드(Arnold, 1922, 279)는 “무슬림 문명은 몽골인이 자행한 파괴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 . . . 그들은 아바스 가문의 최후

칼리프 알 무스타심과 가족을 죽였고, 시민을 대량 학살하였으며, 도시 대부분을 파괴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의 문화유적, 모스크, 도서관을 불태우고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기록된 고문서, 귀중서 등을 티그리스강에 던져 책에서 묻어난 잉크로 강물이 검게 변하였을 정도로 바그다드 불교와 이슬람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차우드하리(Chaudhary, 2019)는 ‘몽골군이 바그다드 도서관의 책을 파괴하였고 티그리스강이 검게 변하였다’는 국제사회 의 보편적 인식은 과장된 것이며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대다수 주장은 몽골 침략과 야만성을 지적 쇠퇴와 이슬람 황금문명의 종말로 각색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극단적 과장이며, 어떤 주요 출처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그가 주장하는 논지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바그다드 침략 및 파괴에 대한 과장된 각색은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130년이 경과한 후 중세 이슬람세계를 대표하는 역사철학자 이븐 칼둔(Ibn Khaldūn, 1332-1406)의 「*Tārīkh Ibn Khaldūn*」에 ‘도서관 책은 티그리스강에 던져졌고, 도시를 정복하였을 때 무슬림은 페르시아 책과 함께 죽었다’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몽골군이 책을 티그리스강에 던졌다라는 주장은 서구사회가 바그다드 포위를 기술하면서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그다드 도서관의 많은 책 중 일부를 페르시아 철학자·천문학자로서 홀라구 지원을 받아 천문관측소를 건립한 나시르 알 딘 알 투시(Naṣīr al-Dīn al-Tūsī, 1201-1274)가 소장하고 있었다. 몽골이 바그다드 도서관의 책

을 불태우고 티그리스강에 던졌다라는 주장은 15세기부터 과장되고 왜전된 것이다.

과연 차우드하리의 반론은 정당한가. 1979년 4월 알리가르(Aligarh) 대학의 모타 알 딘 아마드(Mohtā al-din Ahmād) 교수가 시리아 알레포(Aleppo) 대학에서 종교 사본 「*Kitāb al-Wara'a*」(영어 Book of Devoutness)를 발견하였다. 1150년의 사드 자글라 알 카와케비(Sa'd Zāglūl al-Kawākebi) 사본에 아바스 왕조가 와해될 때 사망한 바그다드 학자의 서신을 추가한 것이다. 사본에는 13세기 전투가 티그리스 강변을 따라 확대되어 바그다드가 포위되었고, 1월 29일(화) 무하람(Muharram)에서 대규모 학살과 주변 파괴로 도시 닐(Nil)을 제외하면 곡물이 거의 없었으며, 1월 30일(수) 바그다드로 진격한 후 모든 시민을 죽이고 거리를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Pour, 2017, 15-16). 그리고 몽골 침략을 목격한 이슬람교 신비주의 분파인 수피즘(Sufism)의 페르시아 탁발시인 사아디(Sa'adi, 1210-1291)는 당시 무슬림들이 겪은 충격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였다(Neggaz, 2013, 118-119).

하늘은 당연히 지상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으리라,  
믿는 자들의 사령관, 무스타심 왕국이 종말을 고  
했으니 . . . 우리의 피눈물이 소맷자락을 적시  
는 동안 무자비한 자들이 문지방을 넘어 하렘의  
사랑스러운 여성들을 쥐하였다. 슬프다. 세상의  
순환이여. 뒤집어진 일상이여. 그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음이라. 이제 보라, 그대 저  
신성한 문의 영광을 보았던 자여. 로마 카이사르  
와 중국 칸들은 흙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구나.

황제들이 엎드려 절하며 이마를 갖다 댄 바로 그 곳에 이제는 예인자 삼촌의 피가 흐른다 . . . . . 헛 빛으로 변한 티그리스강이 하류로 흘러가면 야자 수 가득한 오아시스의 모래가 피를 머금은 진흙으로 바뀌리라.

따라서 바그다드가 포위되기 전에 알 투시가 사본 40만매를 마라케(Maragheh)로 옮겼을 지라도 몽골군이 이슬람 심장을 파괴한 악행은 사실이다. 지식탐구는 무슬림의 의무였기 때문에 역대 칼리프는 책을 수집·보존하고 지식을 습득·전파하는데 주력하였다. 칼리프와 학자들은 도서관을 단순한 문헌보존소가 아닌 과학 및 문화발전의 센터로 간주하였다(Osman & Mohadi, 2018, 1252). 9세기 중반 바그다드, 바스라, 쿠파, 마우실 등에는 많은 도서관이 존재하였고, 제15대 알 무타미드(Al-Mutamid, 재위 870-892) 때는 100개를 상회하였다. 13세기 중반에도 많은 도서관과 함께 100개 이상의 서적상이 있었고, 일부는 여러 명의 필사생을 고용하였다(Thompson, 1957, 351). 그 외에 셀주크 재상 니잠 알 물크(Nizam al-Mulk)가 설립한 니자미야 대학도서관, 많은 희귀사본을 수장한 무스탄시리야 학교도서관, 무함마드 이븐 알 후세인 도서관 등이 있었다. 홀라구 군대는 2주간 지혜의 집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을 파괴하였고 대다수 책을 분서하거나 티그리스강에 버렸다. 점토 대신에 책으로 협간을 지었고, 양피지 표지로 샌들을 만들었다(Algeriani & Mohadi, 2017, 185; Murray, 2009, 54). 현재도 아랍사회에서는 ‘몽골이 바그다드 도서관을 불태우지 않았으면 오래 전에 원자폭탄을 발명하였을 것이다. 바그다드 약탈은 우리를 수세

기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Lewis, 1968, 49; Snir, 2013, 26-31).

13세기 중반 기마민족 몽골의 바그다드 광기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자 비블리오코스트였다. 그들에게 관용이란 추호도 없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순환성을 반증하듯이 이슬람 제국에 가을이 찾아왔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그로부터 745년이 경과한 2003년 4월 미영 연합군이 최첨단 무기로 바그다드를 폭격·점령하는 동안 이라크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의 국립도서관 국립문서고(2층)와 마이크로필름 보관소(3층)를 잣더미로 만들었다. 바그다드 비블리오코스트의 진상은 여전히 판도라 상자 속에 있다. 인살라(Insha'Allah: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고 알라후 아을람(Allahu A'alam: 신만이 안다)이다.

### 3.3 조선총독부의 한국사료 20만권 분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에 임명된 데라우치가 착수한 최초 정책은 민족말살을 위한 역사 지우기였다. 최소 3차에 걸쳐 한국사료(역사책, 고문서 등)를 수집한 후 상당수를 인멸, 은폐, 분서, 반출하였다.

그 첫 번째가 1910년 취조국을 동원한 전국적 암수수색 및 분서다. 이를 위해 1910년 9월 30일 공포한 「조선총독부취조국관계」(칙령 356 호)에 따라 식민지 문화정책을 총괄할 부속관서 취조국을 설치하고 사료수집에 착수하였다. 데라우치는 경무총장 아카시(明石元二郎)를 앞세운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전국 경찰서를 동원하여 규장각, 향교, 서원, 서당, 책방, 고택, 권문세가 등에서 단군조선 관련 고

서, 역사서, 애국서, 민간에 전승되던 비기류 등을 강탈·소각하였다(朴殷植, 1915, 362-363; Schofield, 1919; Peffer, 1919; 白麟, 1982; 이상시, 1987, 30; Shin, 2018, 254). 두 번째는 1915년 중추원 주도로 884종(한국서 164종, 일본서 100종, 중국서 560종, 서양서 60종)을 수집하였다(趙凡來, 1992, 123). 책수로 환산한 기록은 없으나 상당수 반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 번째는 1922년 12월 발족한 조선사편찬위원회가 10개년 계획으로 사료수집에 착수하였고, 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확대한 후에도 계속하여 9,914점(사료 4,950권, 사진 4,511장, 문권·화상·편액 등 453점)을 수집하였다. 1926년 7월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 고문이자 근대 고문서학 학립자로 간주되는 구로이타(黒板勝美)가 대마도 범주 종백작가(宗伯爵家) 소장본 한국사료(고문서류 61,469점, 고기록류 3,576책, 고지도 34매, 고화류 18권과 53매 등)를 구

입한 후 은폐 또는 소각하였다(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89-90; 原田榮, 1981). 사료 수집은 193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인멸 내지 분서는 지독한 역사문화 파괴이자 책의 학살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및 학계는 7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죄 또는 인정하지 않고 침묵을 넘어 외면하고 있다. 학술적 반론이나 비판적 논증도 거의 없다. 극소수 연구도 한국 주장을 인용할 뿐 반박하지 않고 있다(宇治郷毅, 1988, 2; 加藤一夫 외, 2005, 357). 반면에 일본 인터넷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51종 20만권 분서설'을 날조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 신문기사를 포함한 많은 사이트는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데라우치의 '20만권 분서설'과 구로이타의 '대마도 종가문서 은폐·소각설'은 사실인가, 왜곡인가. 이를 논증할 자료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일제의 조선도서 20만권 분서설과 대마도 종가문서 은폐·소각설

연도	인물·단체	주요 내용	출처
1910	朝鮮總督府	• 사상서(17권) 교과서(10권) 지리서(5권) 위인전(5권) 역사(7권) 일어(2권) 윤리, 한문 등 51종을 금서목록으로 지정하였다.	朝鮮總督府官報 제69호(11. 19)
1915	朴殷植	• 외국에서 입수한 서적을 불태우고 서적 30여종을 결박하였으며, 수십만 권을 압수하고, 신문판매를 금지하여 조선인을 암흑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韓國痛史(상해: 대동편역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역, 1998), pp.362-363.
1919	Schofield, Frank W.	• 데라우치 정권이 먼저 시행한 것 중 하나가 학교, 도서관, 민가에서 한국사료, 저명한 한국인 전기를 수집·분서한 것이다. . . 일본의 불필요한 반달리즘으로 과괴되었다.	New Haven Journal-Courier (Dec. 30, 1919)
1919	Peffer, Nathaniel	• 일제는 모든 공문서관과 사립도서관을 조사하여 한국사료를 불태웠다. 그리고 지방신문에서 과학잡지까지 한국의 모든 정기간행물을 완전히 근절하는 법률을 가결하였다.	The Truth about Korea (Shanghai: China Press, 1919), p.16.
1919	鄭翰景	• 美國 大統領 閣下여 . . . 日本 政府는 圖書館 及 民家로부터 韓國의 歷史 及 文學的 書籍을 押收하여 燒却하고 新聞 雜誌를 封禁하고 . . . 以上 詳한 것은 韓人 等이 日人으로부터 壓迫 當한 慘酷한 情狀의 大略이다.	鄭翰景이 安昌浩와 李光洙에게 보낸 書信과 委任統治說明書(1919. 2. 25)

연도	인물 · 단체	주요 내용	출처
1933	조선중앙일보	• 평양서에서 압수서적 2천권을 대동강변에서 분서하였다.	5면
1954	金鎮學, 韓徹永	• 데라우치[寺內] 총독은 언론기관을 봉쇄하고 국사(國史)에 관한 서적과 기타 국보적 서적 이십여만책(二十餘萬冊)을 소각하고 일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의 폐쇄를 단행하였다	制憲國會史(東京: 新潮出版社), p.22.
1965	文定昌	• 1910년 11월부터 일본현병, 경찰, 조선 현병보조원 등을 동원하여 . . . 51종 200천여권을 불살르고 . . . 처벌하였다.	軍國日本朝鮮強占三十六年史: 上(東京: 柏文堂), p.80.
1938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 사업목적은 새로운 사서(왜곡된 역사서)를 읽히는 것이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첨경이고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1923-1937년까지 차입한 사료는 4천 9백 50종이었다.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京城: 朝鮮總督府), pp.4-7.
1968	吳允台	• 1910년 11월 일제는 현병과 경찰, 조선인 현병보조원을 동원하여 종로 서점과 전국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급습해 . . . 약 51종 20만권을 분서하였다.	日韓キリスト教交流史(東京: 新教出版社), pp.130-131.
1969	白麟	• 데라우치는 조선어 도서 40여종 20만권을 압수·분서하였다. 이를 애국장서회진(愛國藏書灰塵)으로 지칭하였다.	韓國圖書館史研究(서울: 韓國圖書館協會), p.152.
1976	高峻石	• 조선어 도서 20만권 압수·분서하였다.	抗日言論闘爭史(東京: 新泉社)
1981	原田榮	•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없앨 목적으로 조선어 도서를 압수하여 20만권을 분서하였다.	歴史と現代
1986	서희건	• 조선총독부관보를 근거로 판금한 서적과 수거된 서적은 총 51종 20여만권이라고 광복 후 출간된 「제한국회사」와 「군국 일본조선강점36년사」가 밝히고 있다 . . . 조선사를 왜곡 편찬하는데 참고할 만한 서적만 남기고 모두 분서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고려원), pp.11-12.
1987	李相時	•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 . . 전국 방방곡곡 서사·향교·서원·서당·고가·권문세가 등을 급습하여 . . . 약 51종 20여만권을 탈취하여 소각하고, 이러한 류의 사적 판매를 염금하고 소지자와 열독자를 처벌하였다.	檀君實史に關する文獻考証(東京: カナ出版社), p.30.
1998	崔在仁	• 1910년 한일합병 강제 후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를 두고 일본현병과 일본경찰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사의 사료 20만권을 거둬들여 소각해 버렸던 일제였다.	(우리 國史를 찾자)上古朝鮮三千年史(서울: 精神文化社), p.272.
2005	加藤一夫 등	• 조선총동부는 수십만책의 조선서적을 소각하였다.	日本の植民地図書館(東京: 社會評論社), p.357.
2007	이만열	• 일제강점 후 . . .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서사·향교·서원·서당·고가·권문세가 등을 급습하여 . . . 20여만권을 탈취·소각하고 . . . 비기류들을 포함한 전통적 서들이 대량 강탈되다시피 되어 소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근현대 역사학의 흐름(서울: 푸른역사), pp.488-489.
2011	장신	• 「조선총독부관보」에 기재된 서적 51종의 대부분은 1905년 이후 발행된 애국계몽 서적이었고, 일제가 압수한 서적의 수량은 최대 10만권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역사와현실, 제80호, pp.207-240.
2018	藤本幸夫	• 11세기에서 19세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고려와 조선의 고서적 5만권의 상세한 목록을 집대성하였다.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上製(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Shin, David W.	• 일본은 한국 문화재와 풍부한 자원을 무자비하게 과파하고, 태우고 약탈하여 가져갔다. 예컨대 1910-1918에 한국 오랜 역사를 없애기 위해 20만권 이상을 불태웠다.	Rationa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Lanham, MD: Lexington Books),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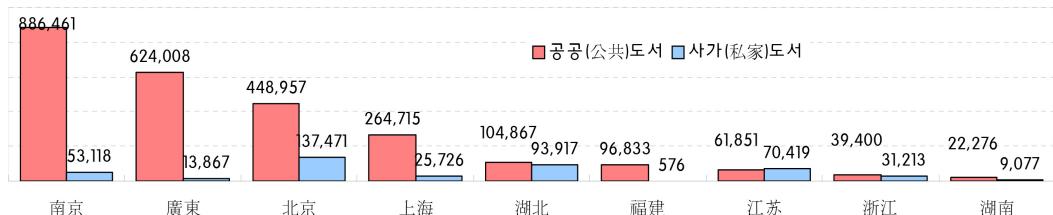
이처럼 ‘20만권 분서설’은 1910년 「조선총독부관보, 제69호」에 실린 금서목록이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15년 박은식이 「한국통사」에서 수십만 권의 금서·압수·분서 등 문화말살을 폭로하였고, 1916~1920년 한국에 체류한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 Schofield)는 1919년 서신을 통해, 중국 상해 「The China Press」의 미국기자 페퍼(N. Peffer)는 소책자 「한국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Korea)을 통해 일제의 지적 억압과 한국사료 압수·분서의 잔혹상을 알렸다. 같은 해 독립운동가 겸 외교관 정한경은 ‘일본 정부가 도서관 및 민가로부터 한국 역사 및 문학서적을 압수하여 소각하는 참상’을 미국 월슨 대통령에게 보냈다. 1933년 8월 15일자 조선중앙일보 5면은 ‘押收書籍 二千卷을 平壤署에서 焚書’라는 제하의 대동강변 분서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사료적 증거를 감안하면 일제는 황국식민화 내지 동화정책을 위한 분서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데라우치의 ‘20만권 분서설’은 1945년 김진학과 한철영이 저술한 「制憲國會史」(1954, 22)에 처음 등장하며, 이어 1925년부터 일제에 부역한 공직자 문정창의 「軍國日本朝鮮強占三十六年史 上」(1965, 80)에도 ‘51종 20만권을 분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조선일보가 광복 41주년 특별기획으로 이상시의 주장을 빌어 1985년 10월 1일자 11면에 ‘일제가 한국 역사서 20만권을 불태웠다’고 보도함으로써 한국사회는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장신, 2011, 207~240).

20만권은 「제헌국회사」에서 쓴 뒤로 어디서도 이

를 증명할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1965년에 문정창은 강점 직후 ‘51종 20만권’이 압수되고 태워졌다는 역사상을 만들었다··· 일반인뿐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사실처럼 여겨진 까닭은 일제라면 능히 가능하며 나이가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과잉 상상된 이미지’ 때문이다. 일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굳이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선입견도 작용하였다··· 심지어 「제헌국회사」 이후의 저자들은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20만권’으로 확정했는데, 이 수치에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도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관보」에 기재된 51종의 서적은 대부분 1905년 이후 발행된 애국계몽 서적이었고, 일제가 압수한 서적의 수량은 최대 10만권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일제의 ‘20만권 분서설’에 대한 반론은 정당한가.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조선사 편찬 등을 명분으로 한국사료 등을 수집하고 상당수를 인멸, 폐기, 분서, 반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분량을 ‘51종 20만권’으로 국한하여 논쟁하는 것은 우매한 접근이다. 일제가 한국사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한 목적은 민족문화 말살과 황국식민화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설령 20만권 이상을 분서했더라도 기록으로 남겼을 리 없다. 폐주할 때 모든 근거자료를 파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시발을 모를 때 름이다. 나치의 베를린 분서는 자국 장서를 불태운 반면에 일제는 한국사료와 문화기록을 소각하였다는 점에서 더 잔혹한 만행이다. 따라서 경술국치 35년간 일제가 강탈·소각한 자료는 ‘20만권 + a’로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일전쟁 때 일본이 중국 도서관의 62%(1936년 1,848개에서 1945년 706개)를 불태웠고(王春南, 1993, 165), <그림 1>처럼 약 3백만권을 파



〈그림 1〉 중일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소실된 중국 도서수

고하였으며(戴雄, 2004, 113-119), 항일 교과서 및 교육도서 1,701권은 교토대학도서관, 왕립아시아협회 상해지부의 12,271권은 문부성 민족연구소로 이관한 사실이 방증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는 1928년 1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일본에서 발간된 약 22만점 중 단행본 9,288권을 검열하여 7,769권을 몰수하였고, GHQ 지령에 따라 일본은 약탈한 130,219권(도서 62,214권, 팜플렛·정기간행물 68,005권)을 중국, 영국, 필리핀, 태국에 반환하였다(鷲谷純一, 2010, 4). 일본의 분서와 반출, 도서관 파괴는 종전 후 자업자들이 되었다.

일제의 비블리오코스트, 그것은 승자의 기록인가, 패자의 기억인가. 일제가 반출·분서한 한국사료의 전모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 진상을 밝히고 복원하는 과업은 현재를 살아하는 한국인의 뜻이다. 패자의 앙탈이 아닌 치밀한 추적과 고증이 절실하다.

#### 4. 요약 및 결론

1852년 마르크스는 뉴욕의 독일어 신문 「혁명」(Die Revolution)에 기고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모든 위대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는 헤겔의 명언에 덧붙여 '한 번은 비극(tragedy)으로, 다른 한 번은 소극(farce)으로 끝난다'는 문구로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였다. 이를 지식문화사에 퍼러디하면 책의 탄생과 도서관 보존이 희극이고 축복이라면 대량 분서와 야만적 파괴는 비극이고 재앙이다. 탄생의 희열과 파괴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역사가 비블리오코스트의 궤적이다.

지난 6천년간 도처에서 자행된 비블리오코스트는 무지와 탐욕, 편견과 오만, 본능적 호전과 폐권주의, 종교적 독단과 배타주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과 전체주의, 정복 심리와 지배 이데올로기, 선민의식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무자비한 반달리즘 때문이다. 거기에 책과 도서관이 함축하는 휴머니즘 대 도전성, 적대적 무기 대 통치교화 수단, 저항세력 온상 대 발본색원 대상,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의 혼재 등과 같은 다중성도 일조하였다. 제왕과 군주, 제후와 사제, 독재자와 호전가, 민족주의자, 극단적 무장단체는 지식과 지혜를 담은 책을 신성 모독의 종자로, 역사문화를 보존·기억하는 도서관을 체재전복 논리를 받아시키는 토양으로 지목하여 금서와 통제, 인멸과 폐기, 분서와 파괴를 통해 정화하고 말살하였다.

서양 사관과 담론의 편향성을 배제하면 이집

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분서와 파괴,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 조선총독부 데 라우치의 한국사료 20만권 분서는 동서양의 비 블리오코스트 사례를 대표한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파괴는 4가지 가설과 미스터리,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은 서양의 날조와 각색, 조선총독부 분서설은 근거 부족과 과대포장 등이 회 자되는 쟁점이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이슬람 칼리프 우마르가 아닌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지배할 때 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왕조 쇠퇴와 학자들의 엑소더스, 로마 제국의 이교도 탄압, 이슬람의 야만적 파괴가 누적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몽골 군 대의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은 서양의 날조된 사관과 극단적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분서설은 1919년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 출발하며, 일제가 35년간 강

탈·소각한 자료는 '20만권 +a 분서'로 인식해야 한다.

책과 도서관은 인류의 치열한 지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야만적 파괴사를 표상한다. 고대는 신화와 왕권을 앞세워, 중세는 신의 이름으로, 근대 이후는 이데올로기가 책과 도서관의 학살을 정당화하여 왔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 기억의 거세이자 지식문화의 반달리즘이며, 참수와 화형을 통한 말살이다. 그 시제는 원료형이 아니다. 이념적, 정치적, 권력적, 종교적 탐욕과 극단주의가 활보하는 한 계획될 수밖에 없다. 2003년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와 행간을 추적하여 저주와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고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남태우 (2002).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성립사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6(1), 259-296.
- 戴雄 (2004). 抗戰時期中國圖書損失概況. *民國檔案*, 3, 113-119.
- 王春南 (1993). 侵華戰爭中日本對中國文化的摧殘. *抗日戰爭研究*, 1, 157-171.
- 宇望鄉 毅 (1985). 近代韓國公共図書館史の研究: 開化期から1920年代まで. *参考書誌研究*, 30, 1-22.
- 윤희윤 (2019). 도서관 지식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 任然 (2019. 12. 8). 圖書館 焚書, 要經得起文明和法律審視. *新京報*.
- 장신 (2011).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현실*, 80, 207-240.
- 趙凡來 (1992).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初期 構造와 機能.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87-130.
-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京城: 朝鮮總督府.

- 兎内勇津流 (1998. 1. 20). 獨露の戰利品図書問題のその後.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221(1. 20).  
출처: <http://current.ndl.go.jp/en/ca1168>
- Algeriani, A. A.-A. & Mohadi, M. (2017). The house of wisdom(Bayt al-Hikmah) and its civilizational impact on Islamic libraries: a historical perspective.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8(5), 179-187.
- Arnold, T. W. (1922). Muslim Civilisation during the Abbasid Period. The Cambridge Medieval Histor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z, F. B. (1980). The Mind of the Middle Ages: An Historical Survey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áez, F. (2008). A Universal History of the Destruction of Books: from Ancient Sumer to Modern Iraq. New York: Atlas & Company. 조구호 번역(2009). 책 파괴의 세계사. 서울: 북스페인.
- Bunson, M. (2014). Encyclopedia of the Roman Empire. New York: Infobase Publishing.
- Canfora, L. (1990). The Vanished Library: a Wonder of the Ancient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sson, L. (2001).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haudhary, Y. (2019). Did the Mongols really destroy the books of Baghdad(1258)? examining the Tigris “river of ink.” Available:  
<https://yusufchaudhary.wordpress.com/2019/02/27/did-the-mongols-really-destroy-the-books-of-baghdad-1258-the-tigris-river-of-ink/>
- Chica, C. (2015). Alexandria: lighthouse of science and humanities. Contributions to Science, 11, 59-74.
- Fishburn, M. (2008). Burning Books. London: Palgrave Macmillan.
- Fraser, P. M. (1972). Ptolemaic Alexand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msted, P. K. (2002). Twice plundered, but still not home from the war: the fate of three Slavic libraries confiscated by the Nazis from Paris. Solanus, 16, 39-75.
- Haughton, B. (2011). What happened to the great library at Alexandria? Ancient History Encyclopedia. Available: <https://www.ancient.eu/article/207/>
- Hillerbrand, H. (2006). On book burnings and book burners: reflections on the power(and powerlessness) of ideas: AAR 2005 presidential addr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4(3), 593-614.
- Knuth, R. (2003). Libricide: the Regime-sponsored Destruction of Books and Librarie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Westport, CT: Praeger.
- Lewis, B. (1968). The Mongols, the Turks and the Muslim polity. Transactions of the Royal

- Historical Society, 18, 49-68.
- MacLeod, R. M. (2000). *The Library at Alexandria: Centre of Learning in the Ancient World*. New York: I.B. Tauris Pub.
- McKeown, J. C. (2013). *A Cabinet of Greek Curiosities: Strange Tales and Surprising Facts from the Cradle of Western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S. (2009).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Skyhorse Pub.
- Neggaz, N. (2013). The falls of Baghdad in 1258 and 2003: a study in Sunnī-Shī‘ī clashing memorie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Osman, R. B. A. H. & Mohadi, M. (2018).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caliphs in the efflorescence of muslim librarianship: a historical account. *Intellectual Discourse*, 26(2), 1247-1261.
- Parsons, E. A. (1952). *The Alexandrian Library: Glory of the Hellenic World*. London: Clever-Hume Press.
- Peffer, N. (1919). *The Truth about Korea*. Shanghai: China Press.
- Philips, H. (2010).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417, 1-22.
- Plutarch (1919). *Life of Caesar*, 49.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lastron, L. X. (2007). *The Destruction of Libraries throughout History*. Translated by Graham, J. E. Rochester, VT: Inner Traditions.
- Pour, A. B. (2017). A study of an unknown primary document on the fall of Abbasid Baghdad to the Mongols(written By The defeated side). *Acta Via Serica*, 2(2), 7-27.
- Ristvet, L. (2014). *Ritual, Performance, and Politics in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h, S. A. (2018). Destruction of the library of Alexandria by Muslims: a mistaken n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Advanced Research*, 7(1), 9472-9482.
- Shin, D. W. (2018). *Rationa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 Lanham, MD: Lexington Books.
- Snir, R. trans. (2013). *Baghdad: the City in Ver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hiem, J. (1979).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burnt: towards the history of a symbol.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0(4), 507-526.
- Thompson, J. W. (1957). *The Medieval Library*. New York: Hafner Pub. Co.
- Tocatlian, J. (1991). *Bibliotheca Alexandrina: reviving a legacy of the past for a brighter common future*.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3(3), 255-269.
- Watts, E. J. (2008). *City and School in Late Antique Athens and Alexandr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hitehouse, D. (2014, May 12). Library of Alexandria discovered. BBC News. Available: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707641.stm>

Wikipedia (2020). Library of Alexandria.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Alexandria](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Alexandria)

Yasmin, K. (2018). Destruction of Alexandria library: a historical reappraisal. Jagannath University Journal of Arts, 8(2), 127-138.

• 국한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Beom-rae (1992). A study on CHUNGCHUW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on and its early organization and function.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6, 87-130.

Dai, Xiong (2004). A survey of the loss of Chinese books during the anti-Japanese war. *Republican Archives*, 3, 113-119.

Jang, Shin (2011).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control of public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e 'burning incident' of 200,000 books.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80, 207-240.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Choso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38). Chosenshi henshukai jigyo gaiyo. Seoul: The Government-General.

Kametarō, Takigawa, note (1985). Shiji: Qin Shi Huang Benji. Taipei: Hong-shi Publishing.

Nam, Tae-Woo (2002).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259-296.

Ren Ran (2019, Dec. 8). Libraries' burning books' must withstand civilization and legal scrutiny. *Xin Jing Bao*.

Tomotani, Junichi (2010). Book requisition of the Japanese army at the foreign concessions in Shanghai during the Pacific Wars(WW2). *Journals of Informatics*, 7(1), 1-12.

Tonai, Yuzuru (1998. 1. 20). After booty book problem of the German-Russian. Current Awareness, 21. Available: <http://current.ndl.go.jp/en/ca1168>

Wang, Chun-nan (1993). Japan's destruction of Chinese culture in the war of aggression against China. *The Journal of Studies of China's Resistance War Against Japan*, 1, 157-171.

Yoon, Hee-Yoon (2019). A History of Library and Knowledge Culture. Seoul: Dongasia.

